

## 처남매제간 산림조합장 선거 격돌



기호1번 남궁중 후보

오는 17일 실시되는 포천시 산림조합장 선거는 처남매제간 맞대결 구도로 실시된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포천시 산림조합장 후보 접수를 받은 결과 산림조합 전부를 역임한 남궁중 후보와 (사)한국전통 가공식품협회 경기도 지회장인 박송근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기호1번 남궁중(52세) 후보는 포천고교와 경복대 경영과를 졸업했으며, 군내면 예비군타격대장, 군내면 체육회 감사, 포천시 검도회 이사,

### 남궁중·박송근 후보 맞대결 양상

포천고 운영위원, 포천의제21추진협의회 위원, 포천시법원 민사조정위원, 포천시 새마을운동지회 이사, 포천동 체육회 이사, 포천중고 18회 동창회장, 포천중고 총동문회 부회장, 포천라이온스 회원, 포천시 산림조합 상무이사, 포천시 산림조합 전무 등을 역임했다.  
기호2번 박송근 후보는 건국대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고 경북대 유통경영과를 졸업했으며, 육군공수 특전사령부 만기제대, 포천군 산림조합 민원사업 담당·대의원·이사, (사)포천 공수특전동지회 3대회장, (사)한국전통 가공식품협회의 경기도 초대 지회장·중앙회 유통이사·경기도 2대 회장·중앙회 부회장,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가사 조정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삼목전통가공식품 대표와 (사)한국전통 가공식품협회 경기도 지회장을 맡고 있다.  
남궁중 후보 공약사항은 ▶대리경영자를 중심으로 기술지도 집중 강화로 육성사업 정착화 ▶인원 및 대의원 조합 사업자 현지견학으로 관심도 제고 ▶신용사업 활성화대책위원회 구성 ▶여성인원 참여토록 추진 ▶소홀을 지소개설 추진협의회 구성 ▶산주조합원 확대 및 비조합원 출자증대 계획수립 ▶조합사업 소시지 발간 대의홍보 강화

▶조합 별채사업단 조직으로 목재유통체계 확립 ▶담당업무 실적분석 결과에 따라 평가 실적제 도입 ▶분기별 여·수신 평가제 실시로 수신강화 대책수립 ▶자재 수요 조성에 맞추어 운영방향 재조정 ▶영리단위 조직정비 및 운영방향 개선 등이다.  
박송근 후보 공약사항은 ▶풍치림 및 산림 보존지역법, 산림훼손법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 관련법 개정 건의 산주경영 활동지원 ▶산주 산림경영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등과 협력 적극적인 홍보와 실적 ▶나무산지의 값싼 목재 수요시장까지 직거래로 가격경쟁력 강화 ▶포천지역 우수 수목 도시민에게 직접 공급, 육상에 정원을 꾸미는 사업 전개 도농산림 자매결연 추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 여신사업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육성 ▶산림훼손 방지 장묘문화 수목장(樹木葬) 보급운동 전개 ▶산주에 대한 정부 용자지원 활성화 ▶목재가공공장 유치 및 유통구조 개선 ▶산림경영 자문단 운영 등이다.  
남궁중 후보는 산림조합장 출마 동기에 대해 "산림조합은 산림계 조직을 통하여 과거 6.25동란 이후 황폐화 됐던 민둥산에 국토녹화사업을 추진하여 성공한 주역으로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바 있습니다. 그러

나 이제는 그 울창한 숲이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볼 때 조합의 위상이 정부나 국민들로부터 그 대가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머물고 있다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볼 때 안타깝기만 합니다. 조합도 하루빨리 자립조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 따뜻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저는 26년간 산림조합에서 근무한 갖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자는 경영의지와 신념과 항상 공리하는 사람만이 조직의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해 왔으며 포천시 산림조합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박송근 후보는 산림조합장 출마 동기에 대해 "지금은 산을 바라만 보는 시대 아니라 가꾸고 경영하는 시대입니다. 산은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까운 땅이 아니라 바로 자원이며 막대한 부가 가치를 잠재한 경제공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산은 푸르게 가꾸는 단계가 아니라 가치있게 가꾸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가치있게 가꾸려면 유실수와 약초, 기능성 수목 등을 적극적으로 심어야 하고,



기호2번 박송근 후보

이에 대한 정부의 용자지원과 정책 배려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산림조합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 진다면 산림조합 중앙회를 통해 산주들의 경영의지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산에 대한 애정과 함께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산림경영 의지는 행정가로서 보다 경영자적인 입장에서 더욱 설득력을 가집니다. 관료주의와 행정 편의주의를 극복하고 조합원들에게 실익이 돌아가는 산림정책이 필요하고 특별히 산이 아름다운 포천을 산림경영의 세계적인 모범지역으로 만들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하승만 기자 forme65@paran.com

### 영농시기별 종합컨설팅팀 운영

포천시농업기술센터, 농가별 맞춤형 처방 제공

포천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들을 위해 그간 1인 1작목을 전담으로 컨설팅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영농시기별 종합컨설팅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작목별 전문지도사가 농가를 방문해 작목재배기술을 지도해 왔으나 농가의 종합적인 애로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작목별로 팀을 구성, 재배기술에서부터 병해충관리와 농축산물의 유통·판매까지 농업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포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4월 1주 배아 콩 ▶2주 과수(사과) ▶3주 채소(고추, 오이,



포천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들을 위해 그간 1인 1작목을 전담으로 컨설팅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영농시기별 종합컨설팅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 도시개발 방향 설정 위한 관리지역 세분화

올 연말 경기도 승인거쳐 최종 결정 고시 예정

포천시는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연구용역을 마치고 주민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거처 올 연말경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을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214.7km<sup>2</sup>의 포천시 관리지역 면적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에 의뢰해 지난 2003년 6월부터 2005년 7월까지 토지적성평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난달 20일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토지적성평가 연구용역은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초자료 구축은 물론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료제공 차원에서 실시했다.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최종보고를 청취한 포천시는 8월과 9월중 주민의견청취를 비롯한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승인 신청을 거쳐 올 연말경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을 최종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또 토지적성평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원에 의하면 집단화를 위한 구획면적 설정 기준을 하

나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하나의 토지면적은 3만m<sup>2</sup>으로 하되, 기존 관리지역 면적이 3만m<sup>2</sup>이하인 경우는 1만m<sup>2</sup>이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세분화된 지역의 필지 및 면적분포를 토지적성평가 결과 5등급으로 분류하여 1,2등급 토지를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4,5등급 토지를 계획관리지역, 3등급 토지를 도시기본계획 또는 지역별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세부원칙에 의해 실시했다.  
포천시 전체 면적은 1읍1면6동 82리에 826.44km<sup>2</sup>으로 이중 관리지

역은 214.70km<sup>2</sup>(25.98%), 도시지역 34.70km<sup>2</sup>(4.20%), 농림지역 566.17km<sup>2</sup>(68.50%), 자연환경 보전지역 10.87km<sup>2</sup>(1.32%) 등으로 구성되었다.  
포천시는 위와 더불어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 지난 6월까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DB구축을 마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용도지역, 지구, 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신설, 변경, 폐지검토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안)를 작성한 후 내년 8월경 도시관리계획(도시재정비)을 최종 결정, 고시할 방침이다.  
하승만 기자 forme65@paran.com



소흘읍 송우리 이흥우 씨의 담장에 있는 오목눈이 새의 둥지에 지난보다 훨씬 큰 뱀구기 새끼를 기르고 있다. 다른 새들에 비해 부화기가 빠르며 먼저 부화된 뱀구기 새끼가 본능적으로 다른 알을 밖으로 밀어내고 혼자만 살고 있다. 부화 후 23일이 지나면 동지를 나와서 생활하며 그 후 일주일이 지나면 동지를 떠난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풍산 그라비아**  
POONGSAN GRAUVRE

포장지 생산 제조라인을 모두 갖춘 전문회사 풍산그라비아는 포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생명력을 가진 식품 포장재 생산!!!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포장재를 생산합니다.

**생 산 품 목**  
지퍼백, 진공포장지, 제과봉투류  
커피봉투류, 각종 오일팩류  
애견 식품 및 용품포장류  
낙시용품 포장지류

**용 도**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축산물 가공식품, 조리식품  
기타 각종비닐포장지류

**가 공 제 품**  
스텐당심방, M자가공,  
스텐당지퍼, T자가공, 지퍼삼방  
기타 다양한 가공, 생산설비보유

본사 및 공장 :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600-4 / 전 화 : (031) 536-3531 / 팩 스 : (031) 536-3530 / H·P : 011-279-4002 / 대 표 : 최 정 택